"손자야, 마스크 쓰렴" 하늘에 낀 누런 황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9일, 휴일을 맞아 광주천변에 나들이 나온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황사비상

이달 1~2차례 더 온다

주말 광주·전남 올들어 미세먼지 '최악'

고기압 정체·바람까지 약해 급속 확산

나들이 줄고 병원 북적…건강관리 고심

광주와 전남지역이 올 들어 최악의 황사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이런 강력한 황사가 이번달에만 1~2차례 더 찾아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강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악의 황사**=주말인 지난 8일 전국을 강타한 황사는 지난 2002년 최악의 황사 이후 가장 강했던 것으로 기록됐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400~2천37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이날 오전 10시께 최고 439㎍/㎥를 기록하면서 첫 황사주의보(500㎍/㎥ 이상)가 내렸다. 이는 올해 광주에 찾아든 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휴일인 9일에는 광주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75㎍/㎥로 낮아지면서 황사주의보는 해제됐다.

◇**'강한 황사' 원인**=이번 황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내몽골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뒷자리에서 북서풍을 타고 북한을 거쳐 남동진한 것이다.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정체하고 바람까지 약해 황사 띠를 동쪽으로 밀어내지 못해 하강기류에 의해 미세먼지가 낙하하면서 황사가 확산됐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황사는 상승기류를 타고 이동해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하강기류에 의해 미세먼지가 낙하해 농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면서 "앞으로 한두 차례 이 같은 강력한 황사가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말과 휴일 나들이객 '뚝'**=제철을 맞은 벚꽃과 산수유는 불청객 황사 앞에 제 빛깔을 내지 못했고, 주말을 맞아 목포와 영암 등지에서 시작된 봄꽃 축제에도 상춘객들의 발길은 많이 줄어들었다. 황사주의보가 해제된 9일 오후에는 모래먼지를 털어내기 위한 차들로 세차장이 북적거렸으며, 가정에서도 모래 먼지를 털어내기 위해 물청소를 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건강관리 비상**=황사가 심해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도 부쩍 늘었다. 환자들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충혈되거나 가려운 증상을 호소했다. 또 모래먼지에 니켈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섞인 탓에 피부 건조증이나 비염, 천식 증세가 악화된 시민들이 많았다.

맑은 피부과 신삼식 원장은 "황사가 심할 때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안경이나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즉시 손과 얼굴, 코 등을 씻어야 한다"면서 "특히 길거리 음식은 삼가고, 채소와 과일은 평소보다 더 충분히 씻어 먹는 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환경소음 피해배상 1人 최고 134만원

분쟁조정위 구제기준 첫 공개

"가까운 전화벨 소리 정도에 해당하는 70dB(데시벨·소음 단위) 소음에 시달리면 기간에 따라 1인당 5만~51만원, 착암기나 가까운 열차 소리에 해당하는 100dB 소음에 노출되면 1인당 40만~134만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9일 '2006년 환경피해 구제 기준 및 배상 내역'을 처음 공개했다. 이 기준은 공사장 소음 및 진동, 아파트 층간 소음, 일조 방해 등 일상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피해를 구제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적용된다.

위원회에 따르면 환경피해 구제 대상이 되는 소음 기준은 ▲공사장 소음 70dB 이상 ▲도로(철도) 소음 65dB ▲연속진동 73dB ▲충격진동 86dB 등이다.

배상 가능액은 공사장 등 일반 소음의 경우 ▲80dB 1인당 13만~84만원 ▲90dB 30만~118만원 ▲95dB 이상이면 40만~134만원이다.

위원회는 2005년 말 기준으로 공사장 및 도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 대상 및 소요액을 25만명(전체 인구 5천만명 기준 0.5%), 2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배상 신청은 384건, 700억원(구제 소요액 대비 19%)이고 실제 배상이 결정된 금액은 30억원에 불과, 전체 배상 구제 소요액 3천700억원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 **소음피해 보상기준** (단위:천원)

소음도(dB)\피해기간	70~74	75~79	80~84	85~89	90~94	95 이상
7일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2월이내	120	250	400	560	720	870
3월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4월이내	190	340	510	670	840	1010
5월이내	215	375	540	710	870	1040
6월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9월이내	300	460	630	800	960	1130
1년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1년6월이내	400	570	740	900	1070	1240
2년이내	450	610	780	950	1110	1280
2년6월이내	480	650	810	980	1150	1310
3년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자료:중앙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 **소음 정도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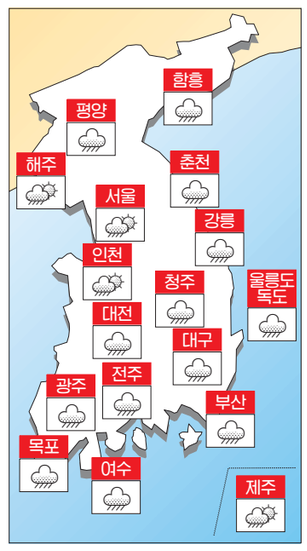
▲50dB=다소 조용한 느낌의 일반적인 사무실 소음 ▲60dB=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소음 ▲70dB=전화벨 소리·일반 거리·시끄러운 사무실 ▲80dB=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90dB=소음이 심한 공장(방직공장 등) 내부 ▲100dB=착암기나 수미터 떨어진 경적 소리·가까운 열차 통과 소리 ▲110dB=1m 이내의 자동차 경적 소리 ▲120dB=가까운 비행기 엔진 소리

'단비' 내린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4월 10일 (음 3월 13일) ◇전국날씨

광 주	흐리고 비	12~18℃
목 포	흐리고 비	11~16℃
여 수	흐리고 비	12~15℃
완 도	흐리고 비	11~16℃
구 례	흐리고 비	12~18℃
해 남	흐리고 비	11~17℃
장 흥	흐리고 비	11~17℃
고 흥	흐리고 비	10~15℃
순 천	흐리고 비	11~17℃
영 광	흐리고 비	11~15℃
진 도	흐리고 비	12~17℃
전 주	흐리고 비	11~18℃
남 원	흐리고 비	10~18℃
정 읍	흐리고 비	11~18℃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2.0~4.0m

목 포 밀물 00:11 12:40 썰물 05:37 18:07
여 수 밀물 07:36 19:49 썰물 01:15 13:43

▲해뜸 06:08 ▲해짐 19:01 ▲달뜸 15:54 ▲달짐 04:3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화)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날 씨						
최저/최고	13/23	11/24	10/18	8/17	8/19	8/20

봄가뭄 해갈 또 단비

광주·전남 30~60㎜ 비

봄가뭄을 해갈할 반가운 비가 또 내린다.

광주지방기상청은 9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9일 밤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광주·전남지역에 30~60㎜의 비가 내리고 남해안 일부 지방에는 80㎜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광주의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9~12도, 낮 최고기온은 15~18도로 포근하겠다.

기상청은 또 9일 오후 3시를 기해 대흑산도·홍도 지방에 강풍 주의보(초당 14m)를 내리고, 9일 오후 8시에 서해남부 먼바다와 남해서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밤 9시를 기해 남해서부 앞바다에 풍랑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다의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것으로 예상되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

민노총 '비정규직법 저지' 총파업

민주노총이 10일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제(계약직) 사용사유제한 도입 등을 촉구하며 연맹별로 순환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 비정규직법안 처리 저지와 함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철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저지 ▲무상의료·무상교육쟁취 등을 내걸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총파업 첫 날인 10일에는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 대학노조 등이 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 광주·전남본부도 오는 14일 열린우리당 광주시지부 앞에서 금속노조 소속 300여명이 집회를 벌일 예정이며, 15일에는 여수시청 앞에서 플랜트 노조 2천여명이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어 20일에는 순천 하이스코 공장 앞에서 '하이스코 투쟁 승리를 위한 광주·전남 단위노조 확대간부결의대회'를 열고, 27일에는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에 가입한 모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노총의 최종안을 국회와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전남대 총학, 법인화 등 미온적 태도 반발

"11~14일 총장 불신임 투표"

전남대 총학생회는 9일 "강정채 총장이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 학교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며 "오는 11~14일 강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국립대 법인화는 사립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 알면서도 강 총장은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또 지난달 30일 강 총장이 학생총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점, 2004년 2학기 13.5%, 지난해 9.5%, 올해 9% 등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도 수강신청 서버는 확충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신임 투표 이유로 들었다. 총학생회는 불신임안이 확정될 경우 14일 총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학본부 점거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총학생회는 이와 함께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 28~29일 전국 대학생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28일 동맹휴업할 계획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